

성 유대절 베드로

청담동성당

강남구 삼성로 720 (홈페이지: www.cdspd.org)
 사무실: 02)3447-0750~1 팩스: 02)3447-0752

주 임 신 부 : 김민수 (이냐시오)
 1 보좌신부 : 김경영 (영주바오로)
 2 보좌신부 : 김세영 (파비아노)
 전 교 수 녀 : 김영희 (비앙카)
 박선옥 (에드워드)
 사 목 회 장 : 장병철 (올리아노)
 연 령 회 장 : ☎ 010-5411-5837

주일미사	토요일 15시(초등부), 토요일 저녁미사 : 19시 / 주일 : 6시, 9시, 11시(교중미사), 15시(중고등부), 17시, 19시
평일미사	월 ~ 토 : 6시 / 화 ~ 금 : 10시 / 화 ~ 금 : 19시
봉 성 체	매월 둘째 목요일 10시 미사 후
관면헌배	매월 둘째 토요일 17시
	고해성사 주 일 미사 전 30분 평 일 미사 전 15분
	유아세례 출수 달 첫째 토요일 17시

소 식

- **본당 전신자 성지순례 주의사항**
 - * 장소: 배론 성지(충북 제천)
 - * 일시: 10월 29일(주일)
 - * 출발시간
 - ▶ 기차탐: 오전 6시 40분 출발(청량리역 8시 출발)
 - ※ 역으로 직접오시는 분은 7시 30분까지 역 대합실로.
 - ▶ 버스타입: 오전 7시 40분 출발
 - ※ 기차 및 버스 모두 중식·석식 제공됩니다.
 - * 버스 출발 장소: 구역별 별도 안내 예정
 - * 준비물: 목주, 물, 개인 상비약, 간이 돛자리(개인별), 편안한 복장
- ※ 청년들은 청년팀으로 따로 모여 버스로 이동합니다. 청년팀 추가 신청문의는 청년 연합회 회장 이 요안나 (010-9678-7876)로 부탁드립니다.

- **건진성사 예행연습**
 - * 10월 21일(토) 오후 8시에 예행연습이 있사오니 건진 대상자와 건진 대부모님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동서울 사제 모임: 10월 26일(목)**
 - * 동서울 사제 모임으로 오후 7시 저녁미사가 없습니다.
- **유아세례: 11월 4일(토) 오후 5시**
 - * 10월 28일(토)까지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 **본당 구역미사 안내**
 - * 본당 구역 활성화를 위해 구역미사를 실시하오니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구역	장 소
10월 26일(목) 오후 8시	5구역	청담동 17-19번지 5층

- **위령성월 성직자모지 미사 (선착순 40명 모집)**
 - * 본당에서 사목하시다 돌아가신 신부님들과 선종하신 교우들을 위하여 연도를 바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 * 일시: 11월 4일(토) 오전 9시, 성당출발 / * 참가비 1만원
 - * 장소: 천주교 용인묘원 성직자묘소
 - * 문의: 정 미카엘 (010-3798-9490)

주임 신부	초대 이창숙 그레고리오 신부
	2 대 최창정 요아킴 신부
	6 대 이봉우 토마스 데 아퀴노 신부
	8 대 박순재 라파엘 신부
보좌 신부	고비오 비오 신부
그 밖에 선종하신 모든 교우분들	

- **김정식과 함께하는 생활성가 미사**
 - * 일시: 10월 20일(금) 오전 10시 / 2층 대성전
 - ※ 한국 가톨릭 문화 연구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로 진행됩니다.
- **시니어 아카데미 휴강 안내**
 - * 10월 19일(목)~10월 20일(금), 참회와 속죄의 성당에서 피정관제로 10월 18일(수) 시니어 아카데미는 쉽니다.

- **금요 콘서트 'La tour du monde'(세계여행)**
 - * 매력적인 악기 색소폰의 음색으로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미국 그리고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곡가의 곡을 들으며 음악으로 떠나는 즐거운 세계 여행
 - * 일시: 10월 27일(금) 오후 8시, 2층 대성전
- **2017년 청담동성당 청년 문화제**
 - *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요한 2:4)의 주제로 이 시대 문화 속에서 청년들이 지녀야 할 마음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또한, 10월 22일(주일)은 와인파티도 같이 합니다. (※ 와인 기증 받습니다.)
 - * 문의: 이 요안나 (010-9678-7876)

일시 & 장소	주 제
10월 15일(오늘) 오후 8시 1층 프란치스코 홀	“종교가 과학이 되려는 시대에서의 신앙” 김정일 안드레아 신부
10월 22일(주일) 오후 8시 1층 프란치스코 홀	“알맞은 협력자란?” (와인파티) 김경영 영주바오로 신부
11월 4일(토) 오후 8시 2층 대성전	성가대 & 챔버단 정기 공연 썬투스 & 베네딕투스

- **가톨릭 성가대 단원 모집**
 - * 주일 오전 9시 미사의 성가 봉헌을 담당하고 있는 가톨릭 성가대에서 함께 성가 봉헌하실 교우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 * 문의: 민 다마세노 (010-2488-8498)
- **2018년 본당 달력 광고 접수 (광고료: 60만원)**
 - * 본당의 모든 신자들에게 배포되는 2018년도 달력에 광고 게재를 원하시는 교우분들께서는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선착순 10팀)
- **2017년도 건진성사 축하꽃 예약 판매**
 - * 본당 현화회에서 건진성사 축하 꽃을 예약 받으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 문의: 심 아타나시아 (010-8651-7451)
- **제 36차 엠마오 동해레일바이크 해변여행**
 - * 일시: 10월 21일(토) 오전 6시 40분, 성당마당 출발
 - * 준비물: 간편신발, 복장, 간식, 엠마오 스카프, 회비(5만원)
 - * 문의: 전 도미니카 (010-3297-6738)

모 임

- * 10월 15일(오늘): 상임 위원회
- * 10월 16일(월): 춘천교구 후원미사 (10시) / 성령 기도회 (강사: 박덕유 알로이시오)
- * 10월 17일(화): 전례분과
- * 10월 18일(수): 성모회 / 시몬회
- * 10월 20일(금): 남성 성체 조배회 / 해설단
- * 10월 21일(토): 초등부 자모회

성가번호 입 당: 403 예물준비: 512, 513 성 체: 182, 179, 496 파 견: 21

화 답 송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주임 신부의 독서 사목 이야기 (7)

【 음독, 묵독 그리고 성경봉독 】

책을 읽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리 내어 읽는 음독, 눈으로만 읽는 묵독, 독서자가 정성을 바쳐 성경을 읽으며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는 성경봉독 등이 있습니다. 가장 역사가 깊은 독서법은 음독입니다. 책이 많지 않고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던 시대에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읽어 주는 낭독이 당연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고대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도서관에서는 사제와 학자들이 두루마리 책을 펼쳐가면서 소리를 내어 읽었고, 조선시대의 선비들도 사랑방에 앉아 소리 내어 책을 읽었습니다. 중세 유럽의 수도원에서 독서란 곧 낭독이었고 묵독은 악마의 소행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묵독은 인쇄술이 발달하고 독서인구가 늘면서 보편화되었습니다. 묵독의 결과로, 근대적인 '개인'의 개념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고, 사회 전반에 개인주의가 확산되었습니다. 묵독이 보편화된 현대 사회에서 소리 내어 읽는 음독은 종교의식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미사 중에 독서와 복음에 관한 성경봉독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도회에서는 식사 중에 성경이나 회칙 혹은 신심서적이 낭독되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낭독의 힘 】

책을 소리 내어 읽는 음독에는 낭송, 낭독, 구연이 있습니다. 혼자 책을 소리 내어 읽으면 낭송이지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책을 읽으면 낭독이 됩니다. 어린이나 어르신에게 전래동화와 같은 책을 감정을 섞어 읽어주는 구연동화도 있습니다. 책을 소리 내어 읽을 때 저자·독자·청자가 삼각관계를 형성하여 생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 간에 교감이 일어납니다. 또한 낭독은 듣는 사람들 간에 동일한 내용을 배우게 하여 서로 일치하는 공동체를 생성해 내는 역할을 합니다.

종교적 낭독인 성경봉독은 독서자를 '하느님 말씀의 선포자'가 되게 하고, 동시에 그 말씀을 듣는 신자들에게는 회심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긴박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드릴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양자택일의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들어라, 이스라엘아 「신명 6,4-9」)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도 바오로는 '믿음은 하느님 말씀을 듣는데서 시작된다. 「로마 10,17」고 강조합니다. 성경의 원저자인 하느님 말씀을 먼저 듣는 행위가 신앙의 시작인 셈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회개하는 삶에 대한 결단이며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미사 전례 중에 봉독되는 독서와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로 임하시는지요. 그 순간을 회개를 위한 선택과 결단이라는 매우 긴박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하느님은 당신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청담동성당 주임신부 김민수 이나시오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봉헌 예물		교무금 납부 현황		감사 현금 (9/27 ~ 10/10)			
연중 제 26주일	11,087,460원	총 세대수	3,879세대	정 돈보스코	30,000원	황 모니카	100,000원
연중 제 27주일	3,274,200원			소 미카엘라	50,000원	박 마리아	50,000원
군인 주일 2차	6,437,810원	총 납부 세대	1,339세대	박 말가리다	1,000,000원	김 모니카	150,000원
교무금	44,195,000원			윤장배	50,000원	오 아녜스	200,000원
성소후원금(17건)	410,000원	지난주 납부 세대	20세대	박 올리에따	100,000원	익명	100,000원
				김 요한	100,000원	익명	50,000원
				김 안드레아	100,000원	-	-
		총 납부율(%)	34.5%	합 계: 2,080,000원			